

깻잎논쟁 : 내 연인의 친구, 어디까지 잘해줘도 될까? 그 미묘한 선을 찾아서

여러분, ‘깻잎논쟁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? ‘깻잎논쟁’은 방탄소년단이 방탄tv에서 이미 뜨겁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. ‘깻잎논쟁’이란 친구 커플과 같이 넷이서 밥을 먹을 때 자신의 연인이 젓가락으로 집은 깻잎을 자신의 친구가 떼어줘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을 말합니다.

예를 들어 제가 지금 친구 커플과 같이 밥을 먹는 중이라고 해 봅시다. 제 연인이 식사 중에 깻잎을 집었는데 깻잎이 2-3장 붙어 있었습니다. 그러자 제 친구가 제 연인이 집은 깻잎의 반대편을 젓가락으로 눌러서 제 연인이 깻잎을 한 장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.

방탄소년단 정국 씨는 깻잎논쟁에 대해 절대 반대를 외쳤습니다. 깻잎을 떼어 주다가 손도 잡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대단히 참신한 논리를 펼쳤는데요. 너무 단호해서 단호박 같은 그 마음,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아니!!! 제가 그 자리에 눈 뜨고 앉아 있는데 왜 굳이 제 친구가 제 연인의 깻잎을?! 이걸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

반면에 제이홉 씨나 뷔 씨처럼 ‘깻잎 정도는 떼어줄 수 있다’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친구에게 소중한 연인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요.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것이 더 ‘정이 없다’고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(그것도 그렇네요..)

이 논쟁이 한창 뜨거울 때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 (홍콩반점0410 사장님)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‘깻잎논쟁’은 ‘경제적인 문제’라며 새로운 시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깻잎을 떼어주는 것은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두 장의 깻잎이 분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. 깻잎이 아니라 햄이나 고기였다면 상대가 누구든지 그 반찬을 잡아줬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(듣고 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..)

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각자 반찬이 따로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반찬을 집을 일이

없죠. 게다가 서로 같은 반찬을 동시에 집는 것은 금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논쟁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 식당이나 수입식품 전문점 등에서 직접 깻잎을 사서 드셔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깻잎을 먹으며 한국의 깻잎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. 붙어 있는 깻잎을 서로 떼어주며 자신 이라면 깻잎논쟁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바로 다문화 이해의 첫걸음이니까요!

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어 보고 싶네요! 그럼 다음 연재 때 또 뵙겠습니다!

최은경 (나가사키외국어대학교)

---

<에고마의葉論争が気になる人のための参考動画・日本語字幕付き>

①BTS가語る에고마의葉論争 <https://youtu.be/NufdiWdrxcl>

②베크·ジョンウォンさんが語る에고마의葉論争 <https://youtu.be/IIUu68BO5ic>